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6(4): 58~69, 2018. 12. https://doi.org/10.14700/KITLA.2018.36.4.058

발굴유적 외부공간의 유형별 경관계획 및 조경시공 원칙 연구

신현실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토목·조경공학과 겸임교수

A Study on the Landscape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Principles by the Type Outside Relics

Shin, Hyun-Sil

Adjunct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al, Civil and Landscape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specific standards for landscape planning and construction applicable to landscaping areas in various historical si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historical sit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reservation status and processing techniques,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is divided into those that have been buried underground, such as those that have been exposed to the ground, such as buildings and structures, and those that have a reputation or a record of the sites.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wartime processing technique was classified by such techniques as closures that isolate the site, penetration that can be seen on the site, and overlays where a separate protection facility is installed on the site.

Second, the principles of landscape planning for display of historical sites are divided into the items that make up the historical site, surface treatment of the sites, tree planting,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If the site is not a circular space, the area separating the space by different materials between the components is required. In the event that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site is required, it is deemed desirable to use the soil, and to do so, the use of grasses and shrubs is effectively considered to be effective. The introduction of plants and plant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pace. Depending on the area and nature of the monument, the facility is required to take a cautious approach by reviewing its influence on the landscape and the additional excavation of the monument.

Third, the readjustment method derived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landscaping principle in the historical site space was classified as conservation of status, installation of protection facilities, burial, restoration, relocation, and reproduction.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s essential for limited landscape planning and should not affect the prototype of existing relics. The protection facility shall be installed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relics, and when the soil is formed, the surface treatment shall be required to remove trees that could damage the site and prevent soil and soil oil from being lost after the site. The restoration shall establish a landscaping plan according to the circular preservation based on the clues to the circle. The transfer requires a landscaping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similar to the outer space of an existing site and should be able to highlight the value or location of the original site. The reenactment should have a landscaping plan to revive the landscape and atmosphere of the past for the now-defunct remains.

Fourth, landscaping can simultaneously satisfy the preservation of excavation sites and the increase in exhibition effects. In order to protect the traces of the past and vitalize the site of the ruins today, specific measures are required, the creation of a park for historical sites that preserve the functions and value of the relics, and the formation of a shape of linked contents can be suggested as alternatives.

Key words: Landscape planning and construction, Preservation of original form, Protection of trace, The site of the ruins

† **Corresponding Author** : Shin, Hyun-Sil, Dept. of Architectural, Civil and Landscape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South Korea, Tel.: +82-10-9155-0411, E-mail: landshss@hanmail.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유적지 공간에서의 경관계획 및 시공기준에 대해 조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경관계획과 시공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적지의 유형은 보존상태 및 처리기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보존 상태에 따른 분류는 건조물이나 구조물 등 지상에 노출된 유적과 매장문화재와 같이 지하에 매장된 유적, 유적에 대한 기록이나 명성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장소만 남은 유적 등으로 구분된다. 전시 처리기법에 따른 분류는 유적 주변을 격리하는 폐쇄와 유적 지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통, 별도의 보호시설을 유적 위에 설치하는 중첩 등의 기법들로 분류되었다.

둘째, 유적지 관람 전시를 위한 조경계획의 원칙을 수립해보면, 유적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영역의 구분, 유적의 표면처리,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은 원형의 공간이 아닐 경우 구성요소간의 소재를 달리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유구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 복토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디나 관목류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식재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물은 유적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유적의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유적지 공간에서의 조경시공 원칙을 살펴본 결과 도출된 정비방법은 현상보존, 보호시설 설치, 복토, 수복, 복원, 이전, 재현 등으로 분류되었다. 현상보존은 제한적인 조경계획이 필수적이며, 기존 유적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보호시설은 유적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설치되어야 하며, 복토가 이루어질 경우 유적을 훼손할 수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 후 토사유실방지를 위해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수복은 원형에 대한 단서를 근거로 원형보존에 준하는 조경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은 기존 유적의 외부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계획이 필요하며, 본래 유적의 가치나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재현은 현재 사라진 유적에 대해 과거의 경관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조경 분야는 발굴유적의 보존 및 전시효과 상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고 오늘날 폐허의 장소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유적의 기능과 가치를 살린 유적지 공원 조성, 연계콘텐츠의 형상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원형보존, 조경계획 및 시공, 폐허의 장소, 흔적의 보호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활용 중장기 로드맵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여가가치 증대 및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요구에 대응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문화재 분야는 전반적으로 “보존”이라는 규제위주 개념이 원칙으로 지배해왔고 이 때문에 한국의 문화재보존정책은 동북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발전해 왔다. 통상적으로 보존과 활용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취급되어 어느 한쪽이 우세하면 다른 한쪽은 영향을 받게 되는 대립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재 보존의 틀 속에서도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재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모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교육 자료로 제공하여 문화재 향유의 기회도 넓혀 가야 한다.

이를 당장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화재 현장에서 누적된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화재 보존에 입각한 활용을 위해서는 고고학 발굴의 단계에서부터 본질적 발굴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공개 시 우려되는 훼손의 위험, 관람객에 의한 문화재 피해 방지 대책과 관람 수용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 등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당장 발굴을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것도 기정 사실이다.

고궁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재 활용의 기조는 유형문화재의 활용이 가장 높고 매장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자연유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1].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유적지 정비와 관련한 연구는 특정 유적을 대상으로 문헌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를 통해 유적의 공간구성 및 경관구조, 이용방식 등을 분석하는 연구와[2][3], 유적의 추가 훼손 방지와 복원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

연구가 진행되었다[4-7]. 이외에 소멸된 문화유적에 대한 교육적 활용과 인식제고를 위한 유적의 목록화 및 문화유적지도 등이 작성되기도 하였다[8][9].

유적의 정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원형유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그간 보존정책 및 행정처리에 있어서 원형유지의 의미를 '현상동결'로만 파악하면서 문화재 보존방법의 경직성과 환경오염, 원자재수급불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보존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0]. 또한 유적의 정비복원은 유적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보존가치의 설정 및 평가항목 설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11], 다양한 이론적 검토(보존, 보전, 복원, 재현, 복제 등)를 통해 효율적인 정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12].

개발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 활용을 위해 박물관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지만 이 결과물들이 과거의 맥락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시적 맥락 사이에서도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13].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시행된 발굴유구의 전시 사례를 통해서 도심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개념 및 방식이 문화재 속성과 가치에 맞게 구축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 무엇보다도 발굴유구에 대한 적합한 보존 방식으로 대응할만한 시간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반면에서는 역사공원의 특성화를 위해 문화재와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의 역사공원과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반가운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나 선행하여 정립되어야 할 기준들이 많다.

오늘날 유적들은 대부분 주변의 도시화나 도로 개설로 인해 본래의 기능과 지형의 변화, 외부공간과의 단절에 따른 장소성 약화, 이용에 의한 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11] 해당 유적뿐만 아니라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동선 및 시설물 배치, 통합적 경관의 정비 등 세부항목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im(2013)은 사적지 정비기법에서 유구와 유물을 포함한 유적지의 정비에 대해 다룬 바 있다[14]. 이는 사적지를 정비하는데 있어 기본지침이 되고 있으나 전공 분야의 차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자세한 문화재 조경분야의 경관계획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결국 문화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유적지의 유형별 조경경관 계획 및 시공방법에 대한 프로토 타입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적지의 조경경관 형태에 대해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적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경관계획과 조경시공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유적지 외부공간을 창출하는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 유적지 발굴 이후 관리상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유적지의 효과적 전시 관람을 위한 조경 경관계획 및 시공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로 발굴조사 후 관리상 문제점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굴조사의 대상은 충적지에 있는 층과 면이다. 유적을 구성하는 유구와 유물의 연대와 축조순서 등을 밝히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발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굴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당초 예상치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짧게는 수개월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명의 고고학자가 평생에 걸쳐 몇 개 안되는 발굴현장을 거치는 것도 그 이유다.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발굴지역에 존치하거나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발굴지역에 관련된 컬렉션으로 보존되는 경우로 구분된다[15].

발굴현장은 유물 등의 수습과 보존처리가 급선무이며 발굴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풍화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지에 복토를 하게 된다. 건물의 기단부나 시설 등이 다수 남아있는 경우는 일부만 복토를 시행하기도 한다.

발굴현장은 보존 및 보안상 외부에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발굴 작업이 마무리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까지는 대부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문화재 등을 통한 역사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관련 콘텐츠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발굴은 발굴을 통해 가치 있는 것들만 골라내는 "보물파기" 대상이 아니며 총체적인 "흔적보호[1]"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가 발굴된 순간부터 국민들의 호기심은 발동하고 있으며 발굴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발굴현장은 발굴 작업이 끝나거나 차기 발굴을 앞둔 상태에서는 지면을 원상태로 복토하기 때문에 공개된 발굴현장설명회 등을 제외하고는 발굴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굴 팀이 발굴사업을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중단하고 현장을 비우게 되면 복토된 유적에는 잔디로 피복하거나 유구나 유물에 손상이 없는 초화류 등을 식재하게 된다. 발굴지가 그대로 존치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잡초나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한다. 이는 마치 나대지 같은 느낌 마저 주게 된다. 또 복토된 발굴지는 주변 주민들이 이곳을 텃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유적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표지판만 세워져 있으며 때로는 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있다.

현재 우리의 발굴유적은 관람객들이 원형의 장소에 와서 과거의 역사나 공간의 분위기를 느낄만한 콘텐츠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채 '흔적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발굴에 있어서 유구나 유물의 보호가 우선한 예산투입과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결과임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발굴유적도 국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고고학 발굴지를 '보는 역사'로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유적지의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조경계획과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발굴유적이 오랜 기간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미관상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된다. 겉으로 보이는 과거 역사의 흔적인 '폐허의 공간'을 연출하고 관리하는 기법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Figure 1. Gyeonju Yonggang-dong wonji Yujeok(Palace Garden Pond Site in Yonggang-dong, Gyeonju) is used as a Vegetable Garden after Piling up Soil[17]

Figure 2. Exposure Figures of the Hyeeumwon Inn Site, Paju[17]

Ⅱ. 연구방법

1. 용어정리

대부분의 유적은 오랜 시간동안 폐허로 남아 있거나 땅속에 묻혀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 '유적(遺跡)'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인류가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있는 터전'으로 '유물(遺物)'이 인류가 만든 소규모 단위의 제작품이나 물건으로 해석되는 것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그 외 유적과 비슷한 개념인 유구(遺構)는 인류가 활동한 흔적이 잔존하는 유적을 이루는 개개의 장소나 구조물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유적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며, 유물과 유적은 상황에 따라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여러 용도의 유구나 유물이 모여 특정한 유적을 이룬다 하겠다.

Table 1. Terminology Related to the Historic Site

Division	Contents
Ruins	· A place where human remains and relics are left · Big and non-transferable features
Remains	· Individual sites that make up remains · Movement is possible or not possible according to size
Relic	· Things left behind by mankind or products · Features that can be transferred due to relatively small size

유적의 보호와 정비에 있어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나, 보편적으로 현장(in site)에 원상태대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흔적의 보호(safeguarding of traces)'에 관한 입장은 일관된다 하겠다[15]. 그러나 유적은 본질적으로 이미 훼손되어 진정성을 해치지 않고서는 되돌릴 수 없는 전통적 유형문화유산이며 주변의 자연과 함께 황폐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폐허화의 산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19].

유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잠재되어 보이지 않는 유적 및 유구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알기 쉽게 나타내는 기법에서 조경 분야의 역할은 중요하다[20]. 발굴유적은 유구나 유물의 보존이 우선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시설이 입지하는 계획은 어려우므로 유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주변환경을 구성하고 생태적이며 친환경적인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는 조경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 유적지 정비에 대한 기법을 개별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상부에 노출되어 있는 유적의 구성요소 및 그 외에 다양한 요소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해당 유적의 가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적절히 조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14].

유적정비의 일반적 사항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기존의 유적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며, 정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기존 유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매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는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용어의 정의와 문화재수리 원칙 등을 토대로 유적지 경관계획·정비 기준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유적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경 경관계획과 시공기준에 있어 효율적인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유적의 개념에서 '흔적의 보호'라는 유네스코 헌장의 "고고 유산의 보호와 관리 헌장의 보호원칙"에 따라 조경정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발굴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유적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헌장 제5조)내용에 목적을 두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적지 정비유형에 따른 조경경관 계획과 유적지 공간에서의 조경경관정비에서 구체적인 처리기법 제시를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는 일본 등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포함시켰다.

연구에 사용된 유적의 범위는 보존상태와 보존기법에 따라 대분류하고, 지상에 노출된 유적과 매장유적, 그리고 장소만 존재하는 유적, 총 3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단, 유적지를 대면적의 공간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무덤(왕릉, 총, 묘 등)은 지상에 돌출되어 있으므로 형태의 따른 분류에 있어 '지상에 노출된 유적'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유적지 정비방법은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09)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18].

Ⅲ. 결과 및 고찰

1. 유적지의 유형 분류

유적지는 건물이나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존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복원된 중심건물 외에 폐허의 공간은 잔디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유적은 상당한 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역사적·문화적·학문적·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발견과 발굴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만큼 일부 온전하게 보존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와 풍화작용 혹은 전쟁으로 인해 훼손·파괴·변형·소실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19]. 가령 추정이 가능한 유적이 존재해도 그 영역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안내판에 국한되고 있어 실제적인 형태나 규모를 상상하기 힘들다.

유적은 보존 기법에 따라 다양한 보존 형태를 취하게 되며, 유적지 외부 경관정비계획에 있어 조경 분야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존치된 유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보존 상태에 따른 분류'와 '처리기법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보존 상태에 따른 분류

유적의 보존상태 따라 크게 지상에 노출된 유적, 지하에 매장된 유적, 유적은 남아 있지 않고 장소만 남은 유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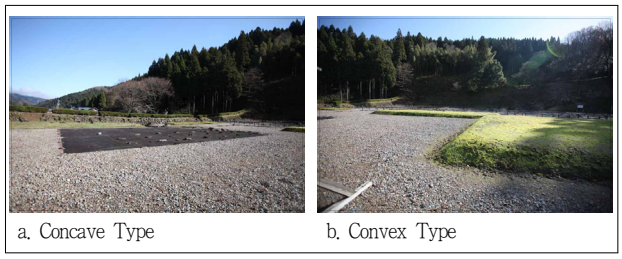
(1) 지상에 노출된 유적

주로 목조나 석조로 구성된 건조물 및 구조물에 해당하며, 유구나 유물이 노출된 형태에 따라 오목형과 볼록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유형분류는 유물이나 유구가 지표면보다 높거나 낮게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형태 위주로 분류한 것이다.

오목형은 발굴된 유적의 유구나 지층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상태로 되어 있으나 지표면보다 낮게 처리된 상태로 지표면은 유구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다. 볼록형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구나 유물영역에 모래와 마사토 등을 덮어 지층면보다 높게 쌓아 성토된 것으로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복토된 상태를 말한다.

오목형 유적은 경사도 상태에 따라 눈, 비, 바람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에 훼손이 심한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유구나 유물의 원상태를 보여주기에 적정하며 특히 유적 내에 남아있는 요소가 거의 없고 석재나 건물의 초석 등의 재료가 남아있을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다. 성토된 유적 외에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반이 높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관람동선으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다.

볼록형은 유적 훼손이 우려될 경우 노출보다는 복토를 통해 당초 영역을 표시하는데 차별성을 둘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존치해야 하거나 관리여건이 열악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오목형에 비해 유구나 유물의 보호에 유리하며 당초 공간의 영역을 표시하기에 유리하고 유적 위에 정보안내 등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적의 복토된 지표면에 잔디 등을 피복하여 주변공간과 대비되도록 처리 한다. 관람객은



a. Concave Type　　b. Convex Type

Figure 3. Conservation of Exposed Remains on the Ground

유적보다 낮은 지표면을 관람동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적 내 무단 침입 등의 위험성이 오목형보다 적다.

(2) 지하에 매장된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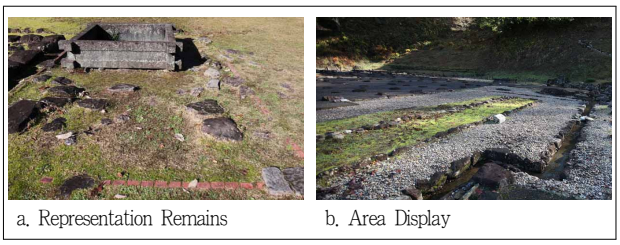
매장문화재로 발견되는 수습대상의 유물 등은 지하에 매장된 시설물이나 유구에 해당하며, 발굴된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전된다. 특히 대상유적이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면서 여러 시대의 유적층이 발견될 경우 매장상태에서 관리하게 된다. 매장된 유적의 경계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유구재현형', '영역표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구재현형은 발굴된 유구나 유물의 가치가 뛰어나고 현장에서 보존이 어려운 경우와 과거에 남아있던 유구나 유물 등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현재 훼손된 경우 지상에 이를 재현한 경우이다. 이는 유적지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장소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재현에 필요한 자료는 신중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영역표시형은 현재 지하에 매장된 유적이라 할지라도 그 형태와 구조가 명확한 유적에 대해서는 복원을 통해 지상에 노출된 유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복원방향 설정이 모호한 경우, 고증과정을 통해 유구의 역사적 구체적 위치만을 표시할 수 있다.

발굴 후 복토된 유적은 원형보존이라는 문화재의 기본원칙에는 부합하나 관람객의 교육·학습적 효과를 고려하여 유구의 범위나 경계를 표시하여 매장된 유적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매장된 유적의 영역과 경계 자체를 표토층에 직접적으로 표시하여 영역의 규모나 형태를 나타내는 데에는 앞에서 설명한 오목형과 볼록형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골재를 사용하여 해당 경계를 구분할 경우 표현하고자 하는 유구의 경계형태를 자유롭고 자세하게 연출할 수 있으나, 우천 혹은 방문객의 이용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a. Representation Remains　　b. Area Display

Figure 4. Case of Preservation of Underground Ruins

(3) 장소만 남은 유적

이는 발굴을 통한 유구 등이 교란되어 유적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명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거의 장소를 재현함에 있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형태와 장소를 비정(比定)하여 활용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의 재현(再現)은 특정한 장소가 갖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 감정적, 행동적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장소성이 부각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위해 기념관, 동상, 테마파크 등과 같은 가시적인 형체를 구현했을 때 '장소재현형'에 해당한다. 반대로 해당 장소에 유적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나 표석을 세우는 등 소극적 설치에 그치는 것은 '장소비정형'의 유적형태라 하겠다. 과거 장소에 이뤄졌던 역사적인 산물을 재현하지 못하는 일례로 장소 자체가 지니는 주변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는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2) **전시 처리기법에 따른 유형 분류**

(1) 폐쇄기법

폐쇄기법은 유적지 내 다양한 용도면에서 각각의 개체를 이루는 유구에 대해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관람로 상에서만 볼 수 있게 동선을 유도하여 유적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야외에 위치하게 되며, 추후 발굴 보존 여부에 따라 복토 혹은 노출된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유구에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보호책을 세우거나 유구와 일정한 여분의 공간을 두어 이격하는 등 외부로부터 출입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유적의 보존 효과가 가장 높으나 관람객의 만족도는 낮은 방법이다.

Table 2 . Categorization of Relics according to State of Preservation

Division	Type	Contents	Actual Remains Confirmation
Site Exposed to the ground	Concave	Lower exposure than the current ground level	Possible
	Convex	State of covering	Impossible
Underground Remains	Representation Remains	Reproduction of a historical sphere on the ground	Impossible
	Area Display	Marking on the ground the boundary of sphere	Impossible
Remains of only Place	Representation Place	Reproduction of an object based on a testament	Impossible
	Positioning Location	Place Identification and Placeness Emphasize	Impossible

(2) 관통기법

관통기법은 유적의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연직 하중을 고려하여 기둥 위에 데크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평면과 일정한 높이를 두고 관람동선을 설치하는 기법이다. 유구의 구조나 형태를 좀 더 근접한 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구조물 설치과정에서 유적이 노출 혹은 매립된 지반의 역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중첩기법

중첩기법은 건물의 내부에 포함시키거나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덮개를 만들어 유구 위에 겹치는 효과를 사용하여 근접거리에서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유적 전체 혹은 일부 면적을 건축물과 물리적인 결합을 통해 내부로 수용하고, 낮은 필로티 구조의 사용만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유적의 관람이 가능한 구성을 지닌다. 그러나 건축물 혹은 구조물을 유적과 중첩하여 수용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유적지 관람 전시를 위한 조경계획 원칙

유적지 외부공간의 정비를 계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통공법과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문화유산의 진정한 보존과 계승의 의미를 준수하는 것이다.

유적지 정비는 유적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중요하듯이 유적지 내 공간별 조경설계에 있어서도 유형별 기준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유적지 정비와 관련하여 조경 분야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한 세목을 영역의 구분, 유적의 표면처리,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영역의 구분

유적 내 각 영역에 대해 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유적의 구성요소 간에 소재를 달리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유적의 공간요소 간의 영역구분에 있어 상록성 관목을 경계식재로 하여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대비효과로 공간이 구분되는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자갈이나 돌조각과 같은 석재는 동일 성격의 공간을 피복하고 관람객의 답압이나 우천 시 배수 등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이 용이하지만 원형의 공간에는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2) 유적 표면 처리

일반적으로 지하에 묻혀있는 유구를 직접 지상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을 위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발굴조사 결과에 의해 구조가 명확한 부분은 원형으로 복원하고 발굴이 계속되거나 유구의 보존이 시급한 경우는 복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적을 복토하여 보호하는 방법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피복재료는 잔디이다. 잔디는 초기 공사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공간의 수평적 특성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상록성 관목류를 피복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굴시 유구나 건물지 등이 교란되었거나 장기적인 차원의 추가발굴이 필요한 장소에 오랜기간 동안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관리조건이 열악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훼손행위가 예측되는 경우에 상록성 관목을 열식으로 식재하면 시인성을 높이고 발굴지가 경작지로 이용되는 등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3) 수목 식재

유적의 전체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나무 그늘을 포함하는 서비스 공간의 식재와 유적공간의 보존을 위한 수목재료의 적절한 선택과 제거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수목층에서 남겨야 할 것과 벌채해야할 것을 선별하고 식재해야 할 수목의 종류와 수량, 위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21]. 수목을 식재할 때는 나무뿌리가 유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토층과 유구층 사이 모래층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과 근원부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뿌리의 뻗음을 방지하는 플랜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적용가능하다. 이는 뿌리생장에 의한 유구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적의 발굴이 재개될 경우에도 뿌리에 의한 매장유적의 피해가 없이 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유적지 내 수목의 선정은 지층에서 얻어진 화분분석(花粉分析, pollen analysis)을 통해 과거 유적이 존재하였던 시대의 식물 종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생육하는 수종의 천이구조의 진행 상태에 따른 식생환경 파악하여 식생복원에 수종선정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의 식생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유적지와 함께 주변 자연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지형·지질·기후·수분 등 다양한 조건에 관한 학술적 검증의 성과에 따라 유사한 식물군집 또는 식물군락을 복원하고 이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14].

4) 시설물 설치

유적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유적의 영역과 동선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유적의 추가 발굴이 예상되는 장소나 경관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관람로의 설치를 위한 동선계획은 유적이 실제로 존재하고 중요도가 높은 위계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형공간에 원래부터 사용되었던 동선과 관람동선은 포장 재료의 변화를 주

어 이전부터 있었던 길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한다. 각 구역의 접합부 처리 또한 공간구성상 중요하다. 길에서 영역대로 바뀔 때나 성격이 다른 공간과의 경계부위는 재료의 구별과 함께 통일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포장 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제성과 내구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유적 내부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의 사용을 자제하고 경관조화에 우선하는 재료와 전통적 디자인의 적용이 중요하다.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유적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내용을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진입부나 유적 개별공간에 설치된다. 안내판은 발굴 당시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관람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상과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갖추고 어린이 눈높이와 장애인 휠체어의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무엇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주변 지형을 활용하여 유적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는 장소의 선정과 전망대의 설치는 전체적인 조망과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기타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설치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필수적이고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매장된 유적의 보호를 위한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유적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하거나 긴급피난체계 등도 계획해야 한다.

Table 3. Contents of Maintenance by Type of Historic Site

Division	Type	Maintenance Details
Differentiate Area	Border plant	Direct discrimination using evergreen shrubs
	Pavement material	Visual separation using clearly distinct pavement materials
Treatment of historical surfaces	Grass plants	grass plants, usually after polluting.
	Planting Plants	evergreen tree plants when left untouched for a long period of time.
Planting Plants	Differentiate Soil layer	Planting with Different Material and Thickness between Soil Layer and Ore Layer
	Plant production	Plant products to control the growth of the roots
Installation of facilities	Viewing road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for Landscape Harmony
	Signboard	Consider easy words and content, installation location
	Observatory	Selection of Viewpoints Considering Surrounding Geography
	Toilet	Minimal installation considering burial grounds
	Protective Measures	Direct protection of relics and safety of visitors

3. 유적지 공간에서의 조경시공 원칙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적의 세부적인 정비 대상은 능묘, 성곽, 사찰, 선사유적, 근대유적, 궁궐·관아, 가마, 향교·서원 등이며, 정비방법으로는 현상보존, 보호시설, 복토, 수복, 복원, 이전, 재현 총 7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8].

1) 현상보존

유적이 현상 보존되는 경우는 조경적 수식이 가장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주요공간에 조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여백의 공간에 화단 처리 등이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원형에 해당하는 길과 관람로는 구분하여 나타내야 하고 관람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조경 식재를 최소화하여 당초 공간의 구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영역의 구분은 원래 유적공간과 서비스지역의 영역구분에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유적내부에 조경적 수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역을 구분한다.

표면처리 경우는 유구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래 유구는 그대로 두고 주변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자갈 등의 석재나 잔디 등으로 피복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수목식재는 지피류나 유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목류를 유구 외에 장소에 식재하거나 복토 시 지표 위에 활용하게 된다.

시설물은 보호울타리나 안내판 등을 활용하며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2) 보호시설

유적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유물이나 유적의 보존상 불가피하게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호시설은 최대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설치하나 보호를 위한 시설의 크기가 큰 경우는 주변과 조화가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진다. 특히 유리나 철재프레임 등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는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기능은 유구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1]. 보호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바닥면을 경화처리 한다. 보호구조물 설치 후에도 실내의 습도를 설치 전과 같도록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22].

기존부터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유구와 건조물에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구조물 내부의 환기와 온 습도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다[2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철책을 설치한다[22]. 보호철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 정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할 경우에는 유구지역

을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보호구조물과 보호철책의 설치 시 유구로부터 일정 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재질, 색깔,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한다. 보호물의 설치로 인해 유구와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는 주변 환경의 조경계획을 통해 이를 조절해야 한다. 최근 보호물의 조형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각물과 같은 형식으로 랜드마크화 하는 경향이 있다.

영역의 구분에서 유적지내 보호시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며 유적에서 원형에 해당하는 영역과 새로 설치된 시설물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다.

표면처리는 보호시설물의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반에 설치하는 기초부가 유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유적의 표면처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수목 식재에서 보호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기존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이동된 수목과 동일한 종으로 주변에 식재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 이전 분위기를 지속시키되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 설치는 보호시설의 설치 이유나 해당 보호대상에 대한 가치 등을 담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3) **복토**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 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한다. 뿌리제거는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고 성토 시에는 차후 정비를 고려하여 성토층과 유구층 사이에 모래 등으로 층을 두어 성토층을 제거할 경우에 대비한다[22]. 성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발굴유적은 발굴조사가 끝난 뒤 현장 보존을 위해 복토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구가 노출되어 있을수록 여러 외부조건에 의해 유구가 훼손되기 쉽다. 복토의 높이 조절은 유구의 손상을 고려해야 하며 복토된 지반 위에 식재되거나 피복될 재료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복토된 공간에서 영역의 구분은 오목형과 볼록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깊이를 조절해야 한다. 과거 원형공간의 형태와 위치, 매몰 유물 등에 대한 정보를 복토된 공간위에 적용할 수 있다.

표면처리는 주로 잔디피복이나 잔자갈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구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수목 식재는 유구층에 미치는 하중을 고려하여 교목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피류나 소형의 관목 등을 사용한다.

시설물 설치는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상의 설치는 할 수 없으며 안내판이나 경계울타리, 배수시설 수준에서의 설치가 허용된다.

4) **수복**

원형에 대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원형에 맞게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이라는 의미보다는 보존 지향적 개념이 강하다. 원칙에 맞게 필요한 작업만큼만 시행하여 원형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보존과 마찬가지의 완성도를 향해 진행해야 하고 구조적인 결함 등을 보완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수식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부분을 기존의 원형과는 달리 차별성을 지니도록 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조경기법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원형과 원형이 아닌 것은 구분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영역의 구분에서 수복된 영역과 원형공간의 차별성을 유지해야하며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구재료와 신재료 접합부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복된 유적의 표면처리는 새로 추가된 영역은 기존영역 보다 융통성이 부여되나 원래 공간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목 식재는 원형공간과 동일하게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되 과거 기록에 존재했던 수목으로 대체했을 경우 위치와 분위기 등을 유지해야 한다.

시설물 설치는 수복된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과 수복근거와 기법, 기술 등을 알릴 수 있는 샘플 등도 전시될 수 있다.

5) **복원**

복원은 유적이 갖는 원형 혹은 역사적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 있어서 원래의 모습 혹은 역사적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라 할 수 있다[18]. 정원유적을 복원하는 경우는 고고학 발굴의 작업 특성에 의해 외부공간에 조성되어 있던 수목이나 석물, 연못 등의 형태가 옛 모습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정원유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제한적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전통정원전문가가 투입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지표를 걷어내고 지층에 남아있는 유구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의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조성되어 있는 조경유적의 경우는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원의 형태에 대해 3D 스캔 등의 방법으로 현상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복원은 진행 정도차이에 따라 전체복원과 일부복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체복원의 경우는 자칫하면 이른바 '가짜'나 '모방'을 뜻하는 진정성과 반대되는 의미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복원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은 사라진 유적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전부를 복원하여 활용해야 할 경우이다. 중국 청대 이궁인 원명원은 서방열강의 침략에 의해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원명원관리처는 복원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절강성에 현지 출신 사업가가 원명신원을 조성하여 전체 규모의 90% 정도를 복원한 바 있다. 북경의 원명원은 이를 왜곡된 가짜 원명원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원명신원 측은 과거 원명원에서 국외로 반출되었던 실제 유물을 사들여 복원된 건물 내에 전시하고 원명원 관련 학자와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원명원 복원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오히려 이를 반박하고 있다.

과거 유적에 대한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이러한 복원사업이 그릇된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복원의 경우가 성공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존과 활용의 선택이 신중해야 한다.

전체복원에 있어서 조경기법은 원형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하고 전통기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체적 분위기에 있어 동질성을 잃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적의 일부가 복원된 경우는 일부 원형에 해당하는 공간과의 차별성이 중요하다.

자칫 일부 복원된 지역으로 인해 원래 원형과 부조화를 일으키거나 본질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주객전도 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조화를 꾀해야 한다. 영역의 구분은 차별성과 통일성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한다.

표면처리에 있어 고증 없는 재료와 식재로 그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당시 재료와 기법을 찾아내어 복원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단부가 존치되어 있는 상태는 기단부가 이미 건물의 형태를 가늠하는데 조경 식재를 통해 동선 등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다. 시설물은 원형 복원된 부분과 서비스 시설 등은 구분하되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특히 복원된 공간에서 재료는 당시 원형소재와 최대한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조경적 수식의 추가는 지양해야 한다.

6) **이전**

유적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대한 관심사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체 혹은 일부를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6].

잔존 유적의 보존에 위협요소가 있거나 현재 장소가 보존하기 부적합한 여러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발굴초기부터 긴급발굴이나 구제발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전할 경우에는 유적에서 가깝고 원래 분위기와 유사한 곳이나 전시상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며 원래 유적의 가치나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조경디자인이 요구된다. 영역의 구분에서 이전된 유구나 유물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표면처리는 이전하기 전에 공간에 있는 재료나 기법을 사용하여 해당 유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한다.

수목 식재는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환경과 유사한 수목을 식재하며 주변경관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전된 공간은 해당 유구나 유물을 위한 장소성을 새롭게 부각해야 하므로 조경적 수식이 중요하다.

시설물 설치는 이전 경위에 대한 정보나 설명 안내판 등과 해당 유구나 유물과 관련된 시설 등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재현**

재건축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사라진 건물, 구조 혹은 물체를 존재하였던 그대로의 정확한 형태 및 세부항목을 전혀 새로운 건축과정에 의해서 재현하는 과정 또는 작업이라 정의한다[23]. 그러나 재현은 원래 장소에 원래 재료가 약간 남아있으나 중요한 복원에 의해서 다시 구성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건물이 원래 있던 장소 또는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원래의 형태의 가까운 형태로 재조합 될 때 이를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영역의 구분에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현된 공간은 원공간과 다르게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 내에 소홀하기 쉬운 동선과 영역의 평면이 만나는 곳, 재현된 공간과 외부공간이 만나는 곳 등의 포장디자인의 처리도 중요하다.

공간의 장소성을 살리고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기법을 현대에 적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표면처리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기록 등에 의거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소재와 기법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수목 식재는 과거 기록에 나타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재료와 식재기법을 고려하고 관람동선 내 유도식재와 복원된 공간의 식재와 차별적으로 구성한다.

시설물 설치는 복원된 공간 내에 서비스 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원형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복원된 공간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휴게시설 등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고 전기시설 등이 복원된 건물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원된 공간에 있어 관람 시에 경관상 위해요소로 작용된다.

4. 종합고찰 : 흔적의 보호와 폐허의 장소

본 연구의 주안점은 유구나 유물을 현장 보존하는 발굴유적지에서 어떻게 하면 발굴성과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관람하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유구의 훼손이나 현상유지라는 원칙을 적용하기에 소재와 방법적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분야가 바로 조경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 발굴현장은 발굴유물의 보호를 위해 복토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모습은 최근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사회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발굴과정에 있거나 흔적은 사라지고 장소성만이 부각되는 경우, 공간의 가치를 부각할 있는 공간의 조성은 조경 분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 장소를 이끄는 분위기의 설정도 문제가 된다.

이는 곧 폐허의 장소, 과거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발굴유적에서 만나게 되는 폐허의 형상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과거의 영광에 대한 덧없음과 쇠락[19]는 멜랑콜리(melancholy)의 정서를 경유하게 된다. 폐허화된 유적이 갖는 원래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해체됨으로서 원형이 갖고 있던 상징과 의미는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19]. 폐허의 장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예전의 건물을 모두 재현하는 것은 자칫 유적의 분위기를 왜곡시키거나 진정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현재 폐허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장소의 향유를 모색하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한 국제적 원칙인 '흔적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중요하다. 이는 조경적 접근을 통해 과거 흔적의 분위기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시키는 것이 세부방안이 관건이다. 새로운 시설의 도입이나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경계획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유적 내에 유구나 유물의 수량이 적거나 넓은 공간에서 산개하면 보존처리 기법의 사용 및 작업이 제한되게 되어 유적의 정비 속도는 느려지거나 정비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적지가 갖는 원래 장소에 대한 갖는 가치와 기능을 살린 유적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유적 내 시공간 상에 배치된 유구나 유물을 연계콘텐츠로 형상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 등을 공원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폐허일 때 활용의 콘텐츠가 다양해지게 되면, 유적지가 도심지와 인접한 경우 높은 활용도는 배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발굴유적지에서 조경 분야가 해야 할 항목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본 것이다. 이 제언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은 유형별 사안별로 시방서가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유적지 공간에서의 경관계획 및 시공기준에 대해 조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경관계획과 시공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적지의 유형은 보존상태 및 처리기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보존 상태에 따른 분류는 건조물이나 구조물 등 지상에 노출된 유적과 매장문화재와 같이 지하에 매장된 유적, 유적에 대한 기록이나 명성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장소만 남은 유적 등으로 구분된다. 지상에 노출된 유적은 노출 상태에 따라 다시 오목형과 볼록형으로 세분되며, 지하에 매장된 유적은 유구영역의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경계표시형과 재료대비형으로, 장소성만 남은 유적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 재현 여부에 따라 장소재현형과 위치비정형으로 세분된다. 전시 처리기법에 따른 분류는 유적 주변을 격리하는 폐쇄와 유적 지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통, 별도의 보호시설을 유적 위에 설치하는 중첩 등의 기법들로 분류되었다.

둘째, 유적지 관람 전시를 위한 조경계획의 원칙을 수립해보면, 유적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영역의 구분, 유적의 표면처리,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은 원형의 공간이 아닐 경우 구성요소간의 소재를 달리하여 경계식재, 포장 대비 등을 통해 공간을 구분하는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유구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 복토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디나 관목류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수목의 식재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고 식재 토양층의 구분, 플랜트 식재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은 유적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유적의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유적지 공간에서의 조경시공 원칙을 살펴본 결과 도출된 정비방법은 현상보존, 보호시설 설치, 복토, 수복, 복원, 이전, 재현 등으로 분류되었다. 현상보존은 제한적인 조경계획이 필수적이며, 기존 유적의 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보호시설은 유적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설치되어야 하며, 복토가 이루어질 경우 유적을 훼손할 수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 후 토사유실방지를 위해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수복은 원형에 대한 단서를 근거로 원형보존에 준하는 조경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은 기존 유적의 외부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계획이 필요하며, 본래 유적의 가치나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재현은 현재 사라진 유적에 대해 과거의 경관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조경 분야는 발굴유적의 보존 및 전시효과 상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고 오늘날 폐허의 장소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유적의 기능과 가치를 살린 유적지 공원 조성, 연계콘텐츠의 형상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편적인 범주에서 유적지에 대해 공간별 정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외부 공간 유적지의 정비와 보호는 국제기구에서 언급하는 '흔적의 보호' 의 원칙에 기초한 과거 모습과 분위기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후에는 이와 관련한 유적지 세부 유형별 정

비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고고 유산 이란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초 자료가 제공되는 물질 유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 존재의 모든 흔적으로 구성되며 모든 인간 활동의 표현과 관계된 장소, 폐허화된 구조물, 모든 종류의 유적(지하 및 수중 유적 포함), 그리고 이들 유적과 관계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문화적 물질(동산 문화유산)을 포함한다[16].

REFERENCES

[1] Cultural Heritage Adminstration(2018). A Planning of Long-Term Road map Using Cultural Heritages.

[2] Rho, J. H., Park, J. S. and Choi, J. H.(2016). Assumptions on the Location of Chanokbyeong and Saahm Park Soon's Garden Remai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4(4): 37-50.

[3] Lee, S. H. and Lee, H. L.(2005).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o, Chi-Won's Relics and His Cultural Landscap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3(2): 60-72.

[4] Kim, M. H. and Sung, J. S.(2015). A Study of Planning for Gumswae-dong Garden Heritage Maintenan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1): 41-51.

[5] Kim, M. H. and Sung, J. S.(2015). A Study of Planning for Sujeong-dong Garden Heritage Maintenan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2): 12-20.

[6] Kim, H. G. and Kim, Y. M.(2010). A Study of the Garden Remains in mountain Bukak in Dohwadong, Seou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1): 66-80.

[7] Ahn, G. B.(2008). A Study on the Restoration for Gyeongsan Sigicdan's Remai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6(3): 8-16.

[8] Lee, J. K., Paek, N. Y. and Kim, S. R.(2003). A Study of Enhancing Recognition of Disappearing Cultural Relic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1(2): 18-29.

[9] Kim, M. S., Yeo, H. J., Choi, J. H. and Lee, J. G.(2004). A Study for Enhancing Recognition of Cultural Relics that have Disappeared in Jongno-Gu, Seou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2(1): 61-69.

[10] Kim, C. G.(2006).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Policy for Local Cultural Properties Conservation and Promotion. Hanyang law Review. 19(-):167-183.

[11] Kim, H. G. and Choi, K. S.(2012). A Study of Evaluation Indices for Selection Castle Remains Maintenance and Restoration Sectio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1): 1-13.

[12] Kim, Y. M. and Kim, C. S.(2006). A Study on the Maintenance Method for Historic Relics Excavated at Bu-So Sanseo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4(2): 70-85.

[13] Lee, H. J.(2015). Planning for Archaeological Relics Excavated in City Center.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4] Kim, C. J.(2013). Understanding th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Historic Sites. Seoul: Nulwa

[15] Kim, G. S.(2013).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Seoul: the drift of time

[16] UNESCO(1990).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17] Cultural Heritage Adminstration(2006). Report on the reclassification by category designated as "Wonji".

[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09). Foreign survey data collection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 sites.

[19] Byeon, C. B.(2015). An aesthetic analysis of the ruins of a historical site.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37(1): 175-203

[20]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2012). Training Material for Cultural Heritage Manager's Course.

[21] Cultural Heritage Adminstration(2011). A Guidebook of the Histiric Sites Conservation in Korea.

[22] Cultural Heritage Adminstration(2014). Standard spec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23] Lee, W. H.(2016).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o Natural Heritage. Journal of Cultural Hertage. 49(1):166-177.

원 고 접 수 일: 2018년 10월 18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4일 (1차)
: 2018년 11월 23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8년 11월 23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